



# 한은 통화안정계정의 특징과 시사점

임형석 (연구위원, 3705-6354)

한국은행이 신규로 도입한 통화안정계정은 주된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단기물 통화안정증권을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간부예금의 만기를 늘리는 등 통화안정계정의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해외 중앙은행은 급격히 증가한 시중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하고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기간부예금(term deposit)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음.
  - 기간부예금은 은행이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자율적으로 예치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수단으로서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은행이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전통적인 지준예치금과 차별화됨.
  - 미 연준은 2010.6월에 기간부예금을 신규로 도입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10억~50억 달러 규모로 만기 14~84일의 기간부예금을 총 7회에 걸쳐 운용하고 있음.
  - 호주 중앙은행은 2008.9월에 기간부예금을 도입하여 2009.4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0.5억~55억 호주달러 규모로 만기 6~26일의 기간부예금을 운용한 바 있음.
- 한국은행도 작년 10월에 기간부예금인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0.5조~1.5조원 규모의 경쟁입찰을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통화안정계정은 한은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한은과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를 실시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 제70조(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일상적 유동성 조절 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통화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예금지급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 조절 등을 지칭함.
  - 통화안정계정 금리는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시 한은이 설정한 내정금리 이내에서 정해진 최고 낙찰금리가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통화안정계정 만기는 최장 91일까지 가능하나 한은은 최근까지 28일 만기로만 운용하고 있음.
  - 통화안정계정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 \* 예외적인 중도해지는 금융회사별로 실시하며 중도해지 금리는 통화안정계정 금리를 적용함.



-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간부예금과 비교해 보면, 한은의 통화안정계정은 미 연준의 기간부예금에 비해 허용 만기 및 실제 운용 만기가 짧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짐.
  - 한은의 경우 허용되는 만기(91일물)가 미 연준(1년 이내)보다 짧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용된 최장 만기도 28일로 미 연준의 84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음.\*
  - \* 미 연준은 총 일곱 번의 입찰중에서 다섯 번은 28일로, 그리고 14일과 84일을 각각 한 번씩 운용하였음.
  - 또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안정계정을 이자를 지급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아닌 강제예치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음.

〈표〉 주요 중앙은행의 기간부예금 비교

	한국은행	미 연준	호주 중앙은행
• 허용 만기(실제 운용)	• 91일 이내(28일)	• 1년 이내(14~84일)	• 단기(6~26일)
• 이자(만기중 변동 여부)	• 내정금리 이내에서 최고 낙찰 금리(만기중 고정)	• 내정금리 이내에서 최고 낙찰 금리(만기중 고정)	• 정책금리에 낙찰 스프레드를 더한 수준(만기중 변경 가능)
• 특이사항	• 강제예치 가능	• 비경쟁입찰 가능	• 중도해지 가능

- 한은의 통화안정계정 만기가 미국보다 짧게 운용되는 것은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서 기간부예금의 역할이 미 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 미국은 기축통화 역할 등에 따른 달러 현금통화 수요 등으로 본원통화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은행간 초단기시장금리인 federal fund 금리가 미 연준이 발표하는 정책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에 따라 미 연준은 federal fund 금리가 정책금리와 큰 폭의 괴리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간 초단기시장에 개입하여 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흡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 연준은 기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제도(2008.10월)와 기간부 예금제도 등을 초과유동성 흡수 목적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편, 한은의 경우는 그동안 초과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RP매도 등을 통해 흡수하여 왔으나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발행 물량을 늘려야 하는 시기나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부담, 그리고 RP매도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채권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 등에 직면하였음.
  - \*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외환위기 직후('98.3월)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이후 '10년말에는 163.5조원 수준을 기록
  - 통화안정계정은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한도 내에서 보완적인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단기물 통화안정증권을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간부예금의 만기를 확대하는 등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으로서 통화안정계정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과 같이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또는 향후 재정증권이 지속적으로 발행되면서 경쟁을 벌일 경우에는 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의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만기 확대 등을 통해 통화안정계정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호주 중앙은행과 같이 지급이자 만기중에도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이 여유자금을 기간부예금으로 운용하려는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F**